

장간호

새러데이 인천

- **인나** 박지영 **나루라** 나루란스 **작업**
- **별인데** 작가의 만화와 **별인데** 열간지리
- **벚숭기** 강박의 맛진과 어 승기 러니
- **홍쓰양** 작가의 명쾌한 **가** **홍쓰양**
- **박혜민** 작가의 모큐멘터리 작업과 **인천** 동화 **다양**

인천 명물
잊을 수 없는 맛!
'스시민'



작가들이 소개하는 인천 명소와 이에 얽힌 스토리!

0000000 000 <0000 00> 0000 0000 000 000?

00 000 0 00 0 0000 00 000000. 00 00 0000 00 0000 00 0000, 000 00 00 00 00 0000 0000 0000 0000. 00 0 0 0000 0000 00 0000 0000 00000000. 0 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. 0000000 00 000000 0000000, 0 00 00 0 00 0000 0000 00 00000. 00000 00 0000 0000 00000 0000 00 0 0000 7~800 00000 0000.

"20만원 이하는 취급 안합니다!"

■ 관심사는?

달리기, 마라톤, 육상, 새벽마다 조깅을 합니다. 게임도 하고, 영화, 모든 종류의 소설책읽기 등등 작업하는 거 빼고 다 좋아합니다.

■ 인천에서 살고 활동하게 된 계기는?

집이 인천이었는데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인천에 와서 내공이나 쌓으려고 다시 인천에 왔는데 이래 저래 하다 보니 댄스가 얼어서 오랫동안 놀러있었습니다.

■ 인천에서 살고 활동하는 것의 장단점.

사람이 좀 적어서 좋지, 동인원이 적하, 죽은 도시여서 좋아합니다. 최근에 느끼는 것은 바다가 가 까워서 좋아요. 단점은 제가 남자지만 만약 여자라면 위험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. 길거리에 사람이 너 무 없어서 혼자 다니기에 무서울 것 같아요. 그 외 장단점을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, 만족하지도 않고, 크게 관심이 없어요.

■ 자신만이 아는 인천의 공간을 소개해주시고 관련한 사연 등 스토리

최근에 개발한 조깅 코스가 있습니다. 7기로 코스. 중구우체국에서 시작해서 월미도 등대까지 평 후 등대에서 해양고등학교 뒤쪽 길로 해서 돌아오고 마지막 피니시 라인은 차이나타운 입구. 이제 딱 칠기로 코스. 낮 말고 밤에만 가야 좋아요. 가로등은 다 꺼져있고 도로에 박아놓은 열이 불빛만 보이고. 그리고 보도 불력에 반짝이가 있어서 비가 오면 그게 반짝여. 이 코스로 걸다보면 보통 길하 기 힘든 나무냄새, 풀냄새 바다냄새를 느낄 수 있어요. 그리고 월미도 쪽 공장단지 지나서 해상고등학 교 길로 빠져 나오면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. 큰 배도 보이고, 밤에 보면 좋은 게 이 작은 불빛들이 환하게 보이니까 그것만 크게 보여요. 보통 도시에선 어둠 자칫 다 보이는데 여기서 마치 시 공에서 별 보는 것처럼.



